데스크시각

혁신은 디테일에 있다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일본 후쿠오카 하카타 역에서 제이알(JR) 기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달리니 아담한 간이역이 나온다. 온천과 3000년 수령의 녹나무로 유명한 사가현의 다케오(武雄)다. 첫인상은 너무 한적하다는 것이었다. 인구 5만여 명의 소도시라는 이름이 민망할 정도였다. 다케오 시립도서관 취재가 아니었다면 평생 찾아올 일이 없을 듯한 작은 도시였다.

다케오 온센역에서 내려 시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드문드문 지도를 펼쳐 든 관광객들이 보였지만 주민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구글맵을 켜고 10분쯤 걸었을까. 대형 쇼핑몰 건너편에 세련된 분위기의 2층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필자를 이곳으로 불러들인 다케오 도서관이었다. 입구에 도착하자 스타벅스 로고가 선명한 표지판이 먼저 반긴다.

브랜드가 된 다케오 도서관

1층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모던한 실내 분위기와 함께 자연 광선을 끌어 들이기 위한 대형 유리 천장에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 도서관의 장서 20만 권이 빽빽하게 꽂힌 벽면과 서가는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스펙터클하다. 이곳에선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책을 꺼내 읽을 수 있고, 1층 매대에 진열된 신간과 잡지를 구입할 수 있다. 굳이 책을 사지 않을 땐 카페에 앉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즐겨도 된다. 도서관에 음악이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다.

사실 5년 전만 해도 다케오는 인적이 드문 도시였다. 온천 관광객을 제외하면 좀처럼 외지인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도서관은 뛰어난 접근성에도 콘텐츠가 부실해 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었다.

지난 2006년 당선된 히와타시 게이스케 시장은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짜내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썰렁한 도서관이 들어왔다.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빠져 도서관을 찾지 않는 세태가 됐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춘 '환경'을 만들면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새 시장은 서점에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을 접목시켜 전국구 스타로 떠오른 마스다 무네아키(컬쳐컨비니언스클럽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이어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그에게 시립도서관을 위탁하기로 했다. 도서관을 맡게 된 마스다는 '공간만 차지하던' 관장실을 없애는 대신 개방형 서가와 열람실 좌석을 두 배로 늘렸다. 또한 신간 도서. 잡지, 문구를 판매하는 츠타야 서점과 스타벅스를 입점시켰다. 운영 시간도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로 연장했다. 직장인들과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도서관을 1년 365일 개방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013년 4월 개관한 '세상에 없던' 도서관은 매년 100만 명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자리 잡았다. 낮에는 관광객들이 찾는 랜드마크로, 밤에는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활기가 넘치는 장소가 된 것이다. 이듬해부터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컴백 홈' 현상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문화적 리더십'을 부탁해

이제 앞으로 닷새가 지나면 이용섭 당선인이 문화 광주의 새 시장에 취임한다.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문화 부시장제 도입, 컬쳐 유토피아,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등 문화 정책들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최근 출범한 인수위원회 성격의 '광주혁신위원회'가 시민 사회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등 7개 분과가 내놓은 지역 현안 과제의 해법들이 구체성이 결여된 수사(修辭)에 그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정의 방향이 불분명하고 위원들의 면면이 현장의 전문가보다는 교수 중심으로 짜여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도 나온다.

근래 광주는 문화수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있다. 올해로 개관 3년째를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유료 방문객이 16만 명(2017년 기준)에 그쳐 '전당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또한 많은 지역 예술인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열악한 삶을 꾸려 가고 있다.

그뿐인가. 비엔날레 도시임에도 9회째를 앞둔 아트페어는 존폐 논란에 직면해 있고 문화 행정의 전문성을 간과하는 광주시의 잦은 인사로 인해 일부 축제와 사업은 정체성을 잃은 지 오래다. 그런 점에서 민선 7기는 허울뿐인 문화 광주의 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척박한 문화 생태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문화로 먹고 사는 광주'를 내건 그의 공약은 공허한 구호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 당선자의 리더십과 의지가 더욱 절실한 이유다.

다케오 도서관의 성공은 고정 관념을 깬,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됐다. 한낱 시골 도서관이 죽어 가는 도시를 살리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개인적으로는 문화 현장에서 축사나 하는 사람이 아닌, 관객으로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평소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와 휴가철 독서 목록이 뉴스가 되는, 그런 멋진 '리더' 말이다. 문화 광주의 혁신은 디테일, 즉 현장에 있다.

/jhpark@kwangju.co.kr

은펜칼럼

지방 분권과 청와대 경력

류동훈
광주일보 은펜클럽 총무

지방선거가 끝났다.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로 소중한 주민 축제다. 이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 민주주의의 선구자들은 목숨 바쳐 헌신했고, 지방선거 투표권도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지도자의 노력과 민주화 운동의 희생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소중한 권리이다. 이 권리는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서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하였는가가 중요한 선택 변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전화 여론조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화에서 불러주는 대표 경력은 경선 승리의 결정적 변수가 되었다.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청와대 경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많게는 20 %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선거 대책본부 OOO 특보' 같이 공식 경선 과정에서 쓰일 수 없는 경력도 넣어버리면, 하위권 후보들도 1위가 되어 버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했다. 실제 광주광역시장과 구청장 선거에서도 보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와 청와대 경력이 위력을 발휘했다. 시장과 서구·남구·광산 구청장 선거 결과 청와대 경력 출신 후보들이 이를 대표 경력으로 강조해 당선되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청와대가 권력의 중심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경력은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과 인맥을 활용하여 지역의 여러 숙원 사업을 해결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단체장들이 너도 나도 다 청와대 출신들이면, 청와대는 누구에게 자원을 몰아서 나눠주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현실은 언제까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것인가? 대통령은 자신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단체장들에게 자원을 몰아주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할까?

한참 정당 경선 여론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서울에서 온 모 언론사 기자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청화대 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청화대 총무실장' 명함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면 당선 가능성이 어떨까요? 또, '청화대'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하나 만들어 '청화대 정책실장' 명함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라고. 돌아온 답은 적어도 광역시의원 경선 정도는 통과할 것 같고, 기초단체장 선거 경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력을 강조했던 많은 후보들은 동시에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공약하고, 이를 촉구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경력을 강조해서 표를 얻으면서, 한쪽에서는 그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본다. 과연 우주의 중심은 어디일까? 서울일까, 태양일까, 아니면, 은하계 어디 별자리일까? 나 자신이 없으면 우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주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이 머물고 있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 국가가 맞다면 권력의 중심은 나와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중심인 마을 공동체이다. 청와대에서 수 개월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한 공적 활동과 지역 마을 공동체와 시민사회에서 헌신하며 수십 년을 활동해온 공적 활동의 무게를 비교할 때 권력의 중심인 국민들 곁에서 헌신해온 경력을 더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열려야 나라다운 나라다.

지방 분권의 가치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노무현의 가치를 함께 이루고자 했던 정치 세력은 한때 폐족으로 몰리다가 노 대통령의 자살로 인한 목숨 값으로 다시 기사회생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지방 분권의 가치가 청와대 경력으로 지방 권력을 모두 휩쓸어 버리고, 지역에서 헌신해 오던 풀뿌리 정치인들 및 활동가들의 헌신과 그들의 비전을 눈물로 만들어 버리는 현상이 고인이 진정 원하던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지금의 청와대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글을 쓰는 이 순간 행여 청와대 권력과 청와대 출신 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지 힘없는 민초는 두렵다.

기 고

셰익스피어와 전통의 만남 '두드려라, 맥베스'

김정희
시인· 지역문화교류재단 부이사장

인간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이야기를 만들어 내지 않는 곳이 없다. 이야기는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다. 인간은 '이야기 하는 원숭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도 그 때문이다.

'한 시대가 아닌 만세를 위한 이야기꾼'이자 현재까지 세계 최고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의 4대 비극 '맥베스'의 스토리텔링을 한국 전통 연희와 접목시킨 '두드려라, 맥베스!'를 관람했다.

'맥베스'는 인간이 서서히 타락하는 과정과 파멸을 묘사한 작품들의 원조격이다. 4대 비극의 특징은 각자 주인공들이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인데 맥베스는 바로 헛된 야망으로 인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두드려라, 맥베스!'는 권력을 향한 맥베스의 붉은 눈을 통해 현대인들의 끝없는 욕망과 어리석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에는 중간 중간 난타용 대북을 두드리며 무대를 가득 채우는 장면이 나온다. 이 두드림은 관객들에게 전쟁의 치열함과 심장의 박동, 즉 생존의 울림을 느끼게 해주는 장치로 보인다.

첫 무대는 정면에 고색창연한 두 개의 문짝 형태의 조형물이 비쳐지면서 작품이 한국적인 텍스트로 재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객석 전면 중앙에 레이디 맥베스가 등장해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반복하며 남편의 승리를 기원하는 모습이 나온다. 돌이켜보면 그녀의 기원은 욕망에 사로잡힌 남자의 여인으로서 삶의 고단한 그리움과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여인상을 떠오르게 한다.

레이디 멕베스의 모습이 사라지면 난타용 대북과 그 옆에 재래식 북 연주석이 보인다.

그리고 난타용 대북이 무대 중앙에서 잘 연습된 각도와 정확한 손동작으로 웅장한 두드림을 한바탕 연주한다. 전쟁의 소란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상황을 재미난(?) 이야기로 전환하는 결정적 요소로 충분했다.

줄거리를 생략하며 원작보다 숨가쁘게 전개되는 타악의 연주는 영혼을 부르는 소리로 관객을 무대 속으로 함께 흐르게 했다. 반란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두 장수 맥베스와 뱅코우가 아들 맥다프를 데리고 등장해 기쁨을 나누고 상대에게 전쟁의 성과와 미래를 예언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말의 뿌리엔 생각이 있고 생각의 뿌리엔 욕망이 있다' 두 장군은 도총관이 되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나라의 최고 권력자, 왕이 되었으면 하는 야심을 드러낸다. 연극 '두드려라, 맥베스'는 원작에서 다뤄졌던 마녀로 인한 인간의 욕망과 파멸을 현대 사회에서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각축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해 재구성했다.

사람들이 열심히 행복을 찾아 헤매야 하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절망의 사회라고. "친구를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며 죽노라" 철학자 볼테르가 생전에 써놓고 죽었다는 묘비명을 생각한다. 어떻게 살고 왜 살아야 하는지.... 태어나 살다 죽는 것이 인간이지만 탐욕스러운 인간의 욕망은 그 야만에 어떤 형벌로 짐을 지울까.

연극을 보면서 경쟁과 성취 보다 삶의 기쁨과 정의를 위한 당신의 희망을 응원해 주고 싶다 생각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기회가 오면 당신도 꼭 객석에서 '인생이 왜 걸어가는 그림자'인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社 說

그래도 실낱 희망은 있다 힘내라 '태극 전사'

한국 축구 월드컵 대표팀이 '전차군단' 독일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오늘 오후 11시(한국 시각)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2018년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F조 마지막 3차전. 양 팀 모두 벼랑 끝에 몰려 있어 사력을 다해 뛸 것이다.

우리 대표 팀은 지금까지 2패를 기록, 승점 1점도 따지 못하면서 조 최하위로 처졌다. 하지만 독일이 스웨덴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한국은 16강 진출 희망을 독일과의 마지막 3차전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독일을 상대로 두 골 이상 넉넉한 점수 차로 승리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 같은 시간에 열리는 멕시코-스웨덴전에서 멕시코가 스웨덴을 잡아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야말로 '실낱' 같은 희망이다.

게다가 한국은 기본 전력에서 독일에 크게 밀린다, 한국이 '다윗'이라면 독일은 '골리앗'이다. FIFA 랭킹에서도 56계단의 큰 차이가 난다. 한국은 57위이고, 독일은 1위다.

전문가들과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들 역시 독일의 완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의 승리는 '기적'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은 둥글다. 태극전사들은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다.

미약한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운명의 대결. 이제 열심히 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도 지금은 비난을 거두고 독일전에서 '통쾌한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낼 때다.

손흥민은 엊그제 멕시코 전에서 패한 뒤 골을 넣고도 웃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마구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오늘은 그날처럼 울지 않기를. 우리 선수들이 모든 것을 그라운드에 쏟아부어 한 점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기를. 1%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다윗의 기적'을 보여 주기를.

'소멸 위기' 전남 인구 대책 획기적 전환을

민선 7기가 곧 출범하게 되지만 전남이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인구 200만 명이 무너진 지 13년 만인 지난해 다시 190만 명이 붕괴되는 등 주민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시군 중 3분의 2 이상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이대로 가면 도(道)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남은 지난 2013년 6월 전국 시도 최초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고 이듬해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만큼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189만6000명으로, 1970년 330만 명에 비해 무려 140만4000명(42.5%)이나 줄었다.

장래 인구 추계도 암울하다. 2035년 주민 수는 178만여 명으로, 현재보다 10만 명 이상 더 줄어들 것으로 전남도는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소년 인구(0~14세)와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2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성장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시군은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출산 장려금과 귀농·귀촌 지원 등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만 쓰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백약이 무효'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면 인구 감소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년층 등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선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김영록 전남 지사 당선인도 도정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로 삼고 종합적인 인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녀 양육, 교육 여건, 문화 시설 등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저녁이 있는 삶

'2069시간'. 2016년 OECD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 시간이다.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고, OECD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당 법정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주중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8시간이다.

여기에 야근 또는 주말 근무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선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되고 그 이하 사업장은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그동안 수많은 야근에 찌들었던 직장인들이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저녁이 있는 삶'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손학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내건 슬로건이었다.

비록 손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패했지만, 그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직접 썼던 저서 '저녁이 있는 삶'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오로지 잘살아 보자고 죽도록 일만 하고 개인과 가족은 없는 사회, 겉으로 보이는 성장만 중요시해 온 우리 사회에 던지는 따끔한 충고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녁이 있는 삶은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여 저녁 시간을 즐기자는 여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 저녁이 있는 삶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민생 경제 아닐까.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일이 끝나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삶, 출산과 육아에서 자유로운 맞벌이 부부의 삶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살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직원을 추가 채용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데,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직장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